

Current Issues of the Chinese Economy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3-53호 / 10월 20일

중국공산당 第16期 3中全會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개요

- 중국공산당 제 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당 제16기 3중전회로 약칭)가 2003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음.
- 이번 회의에는 당 중앙위원 188명과 중앙후보위원 154명, 중앙기율조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였고, 이례적으로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가 당중앙정치국의 위임을 받아 업무보고를 하였음.
- 동 회의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완비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與完善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과 <헌법개정에 관한 건의>(中共中央關與修改憲法部分內容的建議)를 통과시키고, 회의 종료후 <공산당 제16기 3중전회 공보>를 발표하였음.
- 회의에서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위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각각 <결정>과 <건의> 내용을 설명하였음.

2. 당 제16기 3중전회의 주요 내용

- 이번에 통과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완비에 관한 결정>은 중국이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음.
 - 경제체제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초보적인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건설”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완비”로 진일보 확대·심화
 - 올해는 중국이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중류생활 수준의 사회) 건설을 실시하는 원년으로, 이에 적합한 경제체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지도이념 및 사상 원칙을 제시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 과학기술 발전 속도의 가속화 등 대외적인 경제환경 급변에 대한 적시 대응을 강조
- 당 제16기 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완비를 위한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공유제를 위주로 하면서 다양한 소유제도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체제의 완비
 - 도시·농촌의 이원화된 경제구조 개선과 지역경제의 협조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체제의 건립
 -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과 질서가 있는 현대적인 시장경제체제의 건설
 - 거시경제 조절체제와 행정체제 및 경제법률체제의 개선
 - 취업과 소득분배,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체제의 확립

- 이번 <결정>의 핵심 내용은 “5가지 통일적인 계획(五個統壽)”을 관철시키고, “5가지 원칙을 견지(五個堅持)”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 “5가지 통일적인 계획”이란 (1) 도시·농촌 발전의 통일 계획, (2) 지역 발전의 통일 계획, (3) 경제·사회 발전의 통일 계획, (4)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통일 계획, (5) 국내 발전과 대외개방 요구의 통일 계획을 통해 시장기능이 자원 배분을 더욱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등임.
 - “5가지 원칙의 견지”란 (1)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개혁 방향 견지, (2) 대중의 창조 정신을 존중하는 원칙의 견지, (3) 개혁과 발전의 안정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원칙의 견지, (4) 여러 방면의 사안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려하는 원칙의 견지, (5) 사람을 본위로 하는 원칙의 견지 등임.
 - 상기 “5가지 원칙의 견지”는 “3개 대표(三個代表)” 사상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담고 있음.
- <헌법개정에 관한 건의>에서는 헌법 개정을 위한 전제로서 4가지 기본원칙이 제시되었음.
 - 헌법 개정의 4가지 기본원칙은 첫째, 국가의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둘째,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며, 셋째, 엄격하게 법률에 근거하며, 넷째, 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의 발전 및 국가통일과 사회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 등임.
- 3. 평가 및 시사점
- 이번에 당 제16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완비에 관한 결정>은 금후 중국이 정착시켜 나아갈 시장경제체제의 중장기적인 개혁 목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한 강령성 문건임.
 - 이러한 의미에서 동 <결정>은 1993년 당 제14기 3중전회에서 통과되었던 <사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을 위한 결정》(中共中央關於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에 버금가는 역사적 의의가 인정됨.

- 10년 전 중국은 천안문사태의 혼란을 극복하고 경제체제개혁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건설”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 이번에는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완비”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임.
 - <결정>의 핵심은 성장 위주의 불균형발전 전략에서 사회·경제체제 전반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전략을 강조한 데 있음.
- 이번에 당 제16기 3중전회는 다음 4가지 측면에서 종전과는 전혀 다르거나 진일보 발전된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함.
- 첫째, 현대적인 재산권제도의 개혁 방향을 명시
 - 재산권의 명확화와 사유재산권의 보호, 공유제 주도의 원칙하에서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 다양한 자본의 유입과 이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 등의 원칙 천명은 국유 상장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크게 촉진할 것임.
 - 둘째, 투자주체의 다원화 및 주식제가 공유제의 주요 형태가 될 것임을 명시
 - 이는 금후 국유기업 투자주체의 다원화가 촉진되고, 민간기업 및 외자기업에 의한 국유주식 구입 기회가 확대될 것임을 의미함.
 - 셋째, 민간자본의 기초건설 및 공공사업 투자 진출을 명시적으로 허용
 - 당의 공식 문건에 이같은 내용이 최초로 명기됨에 따라 금후 공공사업에 민간 투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임.
 - 넷째, 비공유제 기업에 대해서도 투융자, 세수, 토지사용과 대외무역 방면에서 국유기업과 동등한 지위 부여

- 비공유제 기업에 대한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민영기업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함.

□ 조만간 상기 <결정>에 기초한 중국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조치들이 속속 마련되어 실시될 것인바, 이는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개혁이 보다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함.

- 이에 따라 금후 경제 각 부문에서 체제개혁의 심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인바, 특히 국유기업 지배구조의 개혁과 관련된 주식시장의 역할이 커져 자본시장의 개혁 및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중국공산당 주요회의에 나타난 경제체제개혁 변천

연도	회의명칭	주요 내용
1978년 12월	제11기 3중전회	사상해방, 실시구시의 정신으로 중국이 시장을 이용한 경제체제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
1982년 9월	제12기 전국대표대회	“계획을 위주로 하고, 시장을 보조적인 조절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원칙을 제시
1984년 10월	제12기 3중전회	“계획이 존재하는 상품경제체제” 실시
1987년 10월	제13기 전국대표대회	“국가가 시장을 조절하고, 시장이 기업을 인도 하는 형태의 경제운영체제 제시
1992년 10월	제14기 전국대표대회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건설”이라는 경제체제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비약적인 경제발전단계로 진입
1993년 11월	제14기 3중전회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건설에 관한 결정> 통과
2003년 10월	제16기 3중전회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완비에 관한 결정> 통과